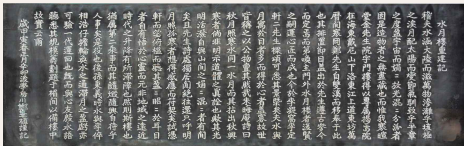


## 수월루중건기(水月樓重建記)

1974\_정화식(鄭華植) 지음\_57.0×131.0cm



1974년 수월루 중건 이후 작성된 기문이다. 동동서원의 역사와 중건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기문은 정화식(鄭華植)이 지었다.

### 水月樓重建記

稽夫水涵大陸而滋萬物滲離乎極極之埃月配太陽而變節氣馴致乎平章之度盈宇宙而娟娟放光混混分派者固是造物者之無盡藏也而惟我寒暄堂金先生院宇門樓得以專屬揭焉院在海東戴尼山下洛東江上道東坊萬曆間寒岡鄭先生自雙溪而移奉于此也其排置節目蓋出於先生遵古參今而定焉而第喚主門外水月樓者後賢之嗣運心匠而成也今於李凝窩李定軒二先生樑頌可悉其景聚矣夫水與月寓於目者多而得於心者蓋寡故世皆稱之以公物重其照映失其靜穆詩曰秋月照寒水同一水月而其拈出秋與寒者倘非明示道體之真詮也歟其光明活潑自與山間之娟娟混混者有間矣且先生詩處獨居閑絕往還只呼明月照孤寒者想得感應而符契矣試憑軒而望俯檻而聽其盈盈昭昭於耳目者自有悟於心靈而元非地域之遠近時代之升降有所滯障也然則斯樓也猶屬第二乘事而其隨隱隨興自待乎人事矣是役也後孫秉義時永與李倅相造仔擔輪奐水之通滯月之盈虧亦可驗一代運回也既而與心友殷永語聽悉其規模籌劃題于楹間以備樓中故實云爾

歲甲寅春正月辛卯後學烏川鄭華植謹記

### 수월루중건기[水月樓重建記]

곰곰이 생각건대, 물은 대륙을 적셔 만물을 자라게 하면서 세상 끝까지 스며들고, 달은 태양과 짝이 되어 절기를 조화롭게 하면서 세상을 골고루 비춘다. 온 우주에 가득하여 아리따운 광채를 뽐내고 끊임없이

나누어 주니 이는 참으로 조물주의 무궁무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월당(寒暄堂) 선생을 제향한 도동서원(道東書院)의 문루(門樓)에 그 뜻을 오롯하게 담아서 걸었다.

도동서원은 현풍(玄風) 대니산(戴尼山) 아래, 낙동강 강가 도동(道東) 마을에 있는데, 만력 연간에 한강(寒岡) 정구(鄭逵) 선생이 쌍계(雙溪)에서 이곳으로 옮겨 봉안하였고, 건물의 배치와 법도는 모두 한강 선생이 옛날을 따르되 당시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다만 환주문(喚主門) 밖의 수월루는 그 뒤에 현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지었으니, 이는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정헌(定軒) 이종상(李種祥) 선생이 지은 상량문에서 그 대강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무릇 물과 달은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마음으로 얻는 이는 드물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흔히 주인이 없는 공물(公物)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그러한가. 회암(晦庵) 주희(朱熹)의 시에 “천년의 성인 마음 생각하는데, 가을 달 찬물에 환히 비치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라고 하였는데, 같은 물과 달이지만 추월(秋月)과 한수(寒水)로 꼭 집어 표현한 것은 도체(道體)의 참모습을 밝게 보여주지 위함이 아니겠는가.

환하고 밝은 달빛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은 저절로 골짜기를 비추는 달빛이나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는 차이가 있다. 또 한월당 선생의 시에 “한가하게 홀로 앉아 오고 감을 모두 끊고, 밝은 달만 불러내어 비추게 하였다네[處獨居間絕往還 只呼明月照孤寒]”라고 하였으니, 이는 달과 물에 감응하여 서로 합치된 것이리라.

시험 삼아 난간에 기대어 달을 바라보고 아래를 굽어보며 강물 소리 들으면, 달은 눈에 가득하고 물은 귓속에 속삭여 저절로 마음을 깨우치게 하니, 본디 지역의 원근과 시대의 부침이 수월(水月)과 함께 노니는 것을 먹거나 늦출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수월루의 중간이 바로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고, 무너지거나 다시 짓는 것도 저절로 사람의 힘이 미치도록 기다릴 뿐이다.

이 공사는 후손 김병의(金秉義)·김시영(金時永) 및 군수 이상호(李相浩)가 건물 준공을 맡았는데, 물이 흐르거나 막히고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도 세상에 좋은 운수가 돌아왔음을 증명한다. 이욕과 마음을 나눈 친구 은영(殷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 규모와 계획을 자세히 들었으니, 이 기운을 누각에 걸어서 수월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따름이다.

갑인년(1974) 봄, 1월 28일(신묘)에 후학 오천(烏川) 정화식(鄭華植)이 삼가 기록함

※ 번역 : 이원규 한국국학진흥원 고전국역위원